

SKT, AI로 만성질환관리 돕는다

**- 국민건강보험공단과 AI 기반 ‘누구 비즈콜’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진행**

**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’에 모니터링 업무 지원**

**- “AI를 활용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‘누구 비즈콜’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”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****※ 협약식 행사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오후 2시 30분 경 추가 배포합니다.** |

**[2022. 5. 31]**

SKT의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 ‘누구 비즈콜(NUGU bizcall)’이 만성질환관리 환자의 모니터링을 돕는다.
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강도태, https://www.nhis.or.kr)과 ‘인공지능 기반 누구 비즈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.

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산 개발 및 만성질환 서비스 담당으로 참여하고 있는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’에 SKT의 ‘누구 비즈콜’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.

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’에는 현재 109개 지역, 약 46만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, 이중 1만명의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환자들에게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‘누구 비즈콜’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.

SKT의 ‘누구 비즈콜’은 제휴사가 답변을 수집하거나 안내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화시나리오를 직접 쉽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.

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고혈압, 당뇨병 및 복합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정보 등 주요 자가 측정 수치를 주기적으로 전화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.

기존에는 환자가 앱에 들어가 직접 수치를 기록해야 했는데, 전화를 받고 질문에 대답하기만 해도 측정 수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할 수 있어 만성질환관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특히 SKT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만성질환관리 외 다른 영역에도 AI 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.

윤현상 SKT A. 상품담당은 “이번 사업협약을 계기로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모니터링에 누구 비즈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AI를 활용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|  |
| --- |
| **※ 사진설명**SK텔레콤은 31일 14시,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‘인공지능 기반 누구 비즈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  |

**▶ 관련문의:  SKT PR1담당 혁신PR팀 김재익(02-6100-6714)**

**<끝>**